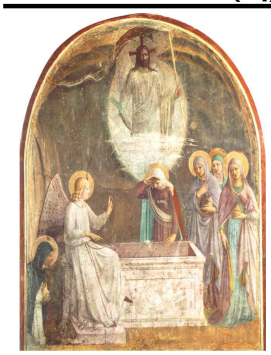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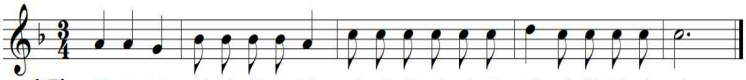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kc.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ny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김 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지도수녀 : 김 효주 (툿찡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백 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 사도 10,34ㄱ.37ㄴ-43

화답송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밑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흗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 2티모 1,8ㄴ-10

복음환호송 ◎ 알렐루아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복음 | 요한 20,1-9

성가

입당성가	128	예물준비	129
영 성 체	136	파견성가	성가대특송

미 사 봉 헌

연미사	봉헌
이철우 스테파노 첫 기일	오병민라파엘,이가을데레사
한주천 모니카	김승현마리아, 김민규요셉
차덕순, 이재영	이영애 레지나
윤기성모니카, 황현상	이영애 레지나
이정진 안토니오	이영애 레지나
이정진 안토니오	이지훈 아네스
김춘원 베드로	린다 김
민병택 베드로	가족
박난성 요셉 프란치스코	양미숙 마리아
민경하 경복순	민완준 필립보
송재숙 크리스티나	송준호 바오로
제임스M.한트, 이문근신부, 전마지마가렛, 강마리아	김경련 율릿다
파이야 김정수 신부 Fr.안토니하, 유바오로 이안나부부	김경련 율릿다
김현두 민경옥 부부, 홍데레사, 윤지호, 박문복	

생미사	봉헌
윤동진 프란치스코, 김승애 클라라	정동주 유스토
박수진 줄리아 생일 감사	양미숙 마리아
김희정, 김영희	김영희 클라라
배의남, 배소피아 가족	안선정 마리안나
이영애 레지나	이지훈 아네스
이혜선 생일축하	이지훈 아네스
강혜숙 엘리자베스, 강호영 안드레아	이영애 레지나
이지연 안나레지나, 이지훈 아네스 생일축하	이영애 레지나
송명자 리디아, 안영옥 분다	이영애 레지나
함경춘	민성진 에드문드
이호성 스테파노, 정지수 안나	청년성서 모임
청년성서 모임 개강	김진섭
김재언 스테파노, 박효순 마틸다	김승현마리아, 김민규요셉
정영시 스테파노 박영순 아가다 건강	정다경
맨하탄 성당 공동체, 가롤로 신부, 효주수녀	안선정 마리안나
김가롤로 신부, 김효주 수녀	이영애 레지나
김지원 돔나, 김홍섭 루크	가족
김수아 아그네스 생일, 김주아 건강	최미양 마르티나
김영숙 가타리나 꾸르실료 수강	울뜨레아 수강
정하상수녀, 김첼레스틴수녀, 박티모테아수녀	이영애 레지나
조스테파노신부, 김미카엘신부, 김루카 신부	이영애 레지나
부영, 미영, 선영, 은영(대녀들)	김경련 율릿다
라파엘 정영록, 현에피파니수녀, 유인수, 유인구, 유혜영	김경련 율릿다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교리	매주 주일 11:00

▶주일 미사 직후 친교실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예수 성가정회(FYMMY)회장 및 회원모집

젊은 부부들이 주님안에서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행복한 성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의지하는 모임입니다.
문의: 청년분과장 강토마스 310-413-1653 카톡: raymondbk

▶청년분과 야유회 & 바비큐

청년회, 학부모회, 성가정회등 모두 참석 가능합니다.
일시:4/29(토) 오전11시-오후4시, 장소: Roosevelt Island Park
참가비: RSVP $30, 당일 $35, 문의: 청년부분과장
김레이몬드 Tel: 408-206-8011 카톡: raymondbk
자세한 내용은 아래 큐알 코드 신청서 참고해주세요

▶나눔의 바자회 물품 도네이션

새옷 또는 새 물품으로 부탁드립니다. 5/20일까지 수녀님 사무실로
문의: 청년회장 양젬마 Tel:714-328-0386 카톡: Jcy258

▶고해성사

부활시기, 4월 한달동안 고해성사 없습니다.

▶바자회 후원금

박기목 알버트

▶2023 주보광고

주보에 사업체 광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사후 다미안홀의 재무데스크 또는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신청비: $200

▶하늘처럼 성가대 반주자 모집

성가대 단원들과 마음 합하여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실 피아노 전공하신 반주자를 모십니다. 문의: 이카타리나 646-696-4680

▶주일학교 교사모집

어린이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성장할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문의: 사무실

▶성경공부 (BIBLE ACADEMY 1학기) 일정

구약	매주일 1시	다미아노홀	김효주 수녀

▶미사전 성경봉독

▶성경을 읽기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경을 읽은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파스카(Pascha)

우리는 "부활절" 또는 "부활 시기"라는 표현을 흔히 사용하지만, 교회의 공식 전례서는 "파스카" 또는 "파스카 시기"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특히, 주님 만찬 성목요일 미사부터 주님 부활 대축일 제2 저녁 기도까지의 3일간은 파스카 성삼일이라고 부릅니다.

파스카라는 말은 원래 "지나가다, 건너가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פסח (Peschach: 페사흐)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축제를 일컬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당시 하느님께서 이집트 땅의 모든 맏아들과 짐승의 맏배를 치실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거르고 지나가셨는데 이를 두고 '지나간다'는 의미로 한자로는 과월(過越)절이나 유월(踰越)절로, 영어로는 Passover라고 번역합니다.

어린양의 피로 하느님과 계약을 맺게 된 구약의 파스카 사건은 신약에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 하느님과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바로 이 파스카 축제를 지내시는 동안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시면서 성체성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수난과 죽음, 부활을 통해 파스카의 어린양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느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함으로써 죄의 종에서 하느님 백성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파스카 시기는 예수님의 부활만을 축하하는 시기가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행적과 신비 전체를 돌아보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순 시기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성목요일 오후에 이루어지는 "주님 만찬 미사"가 그 시작이며, 파스카 축일의 주일부터 50일 후가 되는 성령 강림 대축일에 파스카 시기가 끝납니다.

파스가 성삼일은 "삼 일에 걸쳐 지내는 파스카 축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성삼일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사건을 역사적 순서에 따라 지냅니다. 원래는 성금요일(예수님의 수난과 죽음), 성토요일(무덤에 묻히심), 주일(부활)을 가리켰으나, 4세기에 최후 만찬을 함께 지내게 됨으로써 성목요일의 만찬 미사까지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파스카 성삼일을 통해 '하느님의 어린 양'인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기념하지만, 사실은 모든 미사에서 파스카 신비가 이뤄집니다. 바로 성체성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완성된 파스카 신비를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부속가(2독서 후)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굳게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빈 무덤

박명수 가브리엘 신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허탈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던 사람 중에 제일 먼저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그중 확실한 한 가지 이유는 소중한 사람을 잃은 것에 대한 슬픔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입구를 막아 놓았던 돌은 치워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급한 마음에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 그 소식을 전합니다. 제자들도 얼른 달려가서 보니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은 것도 너무나 슬프고 비통한데 그분의 시신까지 사라져 버렸으니 마리아도 그리고 제자들도 그 슬픔을 주체할 길이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기 전까지 그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빈 무덤'에 대한 체험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로 하여금 결정적인 변화의 순간을 맞이하게 합니다. 곧, 잃었던 예수님을 다시 만남으로써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이는 계기가 되었고 그분의 죽음이 치욕스러운 실패가 아니라 영광의 승리이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과 동시에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권력자들의 거짓된 음모, 군중들의 어리석음, 빌라도의 무책임, 군사들의 조롱과 폭력은 인간이 지닌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이며 예수님을 가두었던 무덤이고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돌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힘도 그분을 죽음의 틀 안에 가두어 둘 수 없기에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은 치워졌고, 무덤은 열렸으며, 그 안은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빈 무덤은 세상 그 어떤 힘으로도 억누를 수 없는 자유로움의 표징이 된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는 우리도 세상에서 거짓과 폭력의 돌, 열등감과 이기심의 돌, 미움과 질투의 돌로 인해 스스로 무덤에 갇히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삶을 가로막는 돌들을 치워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손수 마련하여 주신 자유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